

“추석선물 싸게 팝니다”... 고물가에 중고거래 성행

명절 앞두고 온라인거래 활발
경제난에 소액별이 ‘명절테크’
유통업계, ‘가성비 세트’ 확대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에 ‘추석선물세트’를 판매하는 거래글이 쏟아지고 있다. 고물가·경기 침체 장기화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중고거래로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물세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판매자는 선물세트를 판매해 현금화할 수 있고, 구매자는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추석 선물을 구입함으로써 명절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이 같은 거래 행위를 ‘명절테크(명절선물+재테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물세트 사고팔기를 통해 소액이나마 이윤을 얻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서민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유통업계도 이 같은 기조에 맞춰 ‘가성비 선물세트’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광주지역 거래 글을 살펴본 결과,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11일 전부터 17시간 전까지 활발하게 게시되고 있었다. 1만원 이하부터 2~3만원대까지 ‘저가’ 선물세트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5만원 이상의 ‘블랙라벨’, ‘골드라벨’ 선물 세트가 판매



추석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에 ‘추석선물세트’를 사고 파는 광주지역 판매자들의 거래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근마켓 캡처**

되고 있기도 했다. 식용유나 햄 등의 식품 세트부터 삼푸, 접시 등 생활용품 등 종류도 다양했다. 구매자가 추석 선물을 활용하기 편하도록 ‘쇼핑백 있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있기도 했다. 또 ‘유통기한 넉넉’,

‘박스 양호’, ‘4세트 사면 할인’ 등의 설명이 적혀있는 등 선물세트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난 5월 8일부터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되면서 ‘6년근 홍삼’, ‘홍삼+녹용’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선물세트가 중고거래 매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기식의 경우 이전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어 개인 중고거래가 불가능했다. 시범사업 운영 전에도 건기식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등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일부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된 것이다.

식약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 개봉 상태 제품,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 제품 표시사항(제품명, 영양, 도안 정보 등) 제품, 보관 기준이 실은 또는 상온인 제품, 해외직구 혹은 구매대행으로 구매하지 않은 상품만 판매할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올 추석에는 명절 연휴가 끝난 후 건기식 판매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게가 폐업하면서 남아있는 명절선물세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다는 판매자도 찾아볼 수 있었다.

당근마켓에서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A씨는 “가게 폐업으로 인해 지난 설에 들어왔던 명절 선물세트를 중고거래플랫폼에 판매하게 됐다”며 “새 상품인데도 유통기

한이 넉넉하게 남아있어 추석선물세트도 활용하기 충분하다. 상품당 최소 6세트 이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있고 판매하는 상품 종류가 다양해 채팅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 편이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가격을 확 낮춰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고물가에 가성비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들의 기조에 발맞춰 ‘저가 선물세트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마트는 저렴한 사전예약 전용상품을 개발하고 40% 할인 세트를 지난해 1종에서 올해 5종으로 늘리는 등 합리적인 가격을 최우선으로 준비했다.

특히 사과·배 등 선물세트 가격을 작년 추석 대비 평균 10%가량 낮게 책정했다.

롯데마트도 사전예약 판매 데이터와 최신 소비 트렌드, 물가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경기 불황과 소비 침체에 따른 가성비 선물세트 구색을 확대했다. 축산 선물세트도 10만원 미만 가성비 선물세트 물량을 약 40% 확대 준비했다.

홈플러스 역시 이번 ‘추석선물세트 본 판매 행사’에서 대형마트 이용 고객 니즈가 높은 5만 원대 이하 실속형 세트를 전체 80% 수준인 약 780여 종으로 구성해 고물가 속 물가 부담 낮추기에 주력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 최초 ‘인공지능 디자인 공모전’ 개최

디자인진흥원, 10월 21~31일 접수
랜드마크·라이프스타일·캐릭터 등
“AI 활용 융복합 디자인 개발 촉진”

광주지역 최초로 ‘AI(인공지능) 디자인 공모전’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AI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해 ‘2024 광주 AI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광주시가 시행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해 ‘2024 광주 산업화디자인 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급변하는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해 디자인기업, (예비)디자이너 등의 AI 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AI×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광주 랜드마크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등 3개 분야로 공모한다. ‘광주 랜드마크 디자인’은 AI 프

로그래밍과 편집 프로그램(포토샵, 일러스트 등)을 활용해 광주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광주의 상징(조형물) 디자인이다. ‘라이프스타일’ 분야는 문화예술과 융합해 가구, 가전, 생활 제품, 공예상품 등 생활과 밀접한 디자인을 공모한다.

‘캐릭터 디자인’ 분야는 다양한 캐릭터 디자인과 개발된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 디자인을 제안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출품할 수 있다. 공모 작품은 △디자인 최종 결과물 이미지 △생성형 AI를 이용한 디자인 개발과정 자료(PPT)를 포함해 1인 2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디자인진흥원은 응모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I 활용 능력(적정성, 차별성, 혁신성, 경쟁력) △아이디어 및 디자인 기획 우수성 △완성도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에서는 1차 서류심사에서 20여점 내외를 뽑고, 2차 심사(생성형 AI 활용 개발 과정 등 발표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선정할 계획

이다. 시상금 △대상(1점, 400만원 상금)을 비롯해 △최우수상(2점, 각 200만원) △우수상(2점, 각 100만원 등) △장려상(4점, 각 50만원), 입선(5점, 각 20만원) 등 총상금 1300만원 규모이다.

응모 희망자는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www.gdc.or.kr)의 공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온라인(구글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062-611-5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다운 기자

기아, 연식변경 모델 ‘The 2025 쏘렌토’ 출시

안전·편의사양 등 상품성 강화

기아가 국내 대표 중형 SUV 쏘렌토의 연식 변경 모델인 ‘The 2025 쏘렌토’ (사진)를 2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The 2025 쏘렌토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고급 안전·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신규 사양인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햅틱) 및 선바이저 LED 조명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하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를 엔트리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기본화해 상품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또한 기존에 선택 사양으로 운영되던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지문 인증 시스템 등 첨단 편의 사양을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이밖에도 시그니처 트림부터 적용됐던



The 2025 쏘렌토 그라비티 트림.

기아 제공

디지털 센터 미러(DCM)를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트림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디자인 특화 트림인 그라비티에는 전용 색상이 적용된 도어 사이드 가니쉬를 추가하고 블랙 스웨이드 내장재를 기본화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The 2025 쏘렌토의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모델 △프레스티지 3605만원 △노블레스 3891만원 △시그니처

4202만원 △그라비티 4291만원이며, 2.2 디젤 모델 △프레스티지 3778만원 △노블레스 4064만원 △시그니처 4375만원 △그라비티 4464만원이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2WD 모델은 △프레스티지 3885만원 △노블레스 4181만원 △시그니처 4464만원 △그라비티 4553만원이며, 4WD 모델은 △프레스티지 4260만원 △노블레스 4557만원 △시그니처 4840만원 △그라비티 4929만원이다.

박소영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 올해 단체교섭 잠정합의

임금 3% 인상·격려금 500만원 지급

총파업 위기에 몰렸던 금호타이어가 노사 간 단체교섭 잠정안에 합의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일 진행된 16차 본교섭에서 ‘2024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노조가 3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6년 만에 총파업이 우려됐으나, 직전 봉합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임금인상(기본급 3%) △격려금(500만원) △한국공장 미래성장 및 고용안정 등으로 구성됐다. 또 해외공장 증설, 공장 이전, 한국공장 설비 투자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

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공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 사원들의 고용안정을 담보하는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교섭은 회사의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성장의 지속성에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전기차 수요 감소, 선인 및 재료비 상승 등 하반기 위기 상황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최소화해 협상을 마무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설명회 및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